

해피밀 시즌 6-8호를 발간하며,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견뎌낸 나무가 풍성
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어려움들
을 견디고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가 맺힐 것입니다.

성도분들은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의
열매가 필요하고 또 원하시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열매가
가득가득 열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해피밀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포
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
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절도 변하고,
우리의 상황도 변하고, 시대와 교회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
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도 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
다리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여정입니다. 때
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의 연
약함으로 인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
음씩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
혀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리딩지저스와 함께하는 해피
밀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하나님
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예수 그
리스도께로 돌이키셔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흔들리는 순간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9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Paul Jung

해피밀 시즌6 이렇게 활용하세요 :-)

오늘의 통독범위 입니다.

모세오경 통독완성시 <모세오경 마블자석>을 선물로 드립니다.

2026.02.10(월)



창세기 1~4장

창조와 타락, 구원 계획의 시작(창 3:15)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에
오늘 해피밀 제목입니다. 의 원인이 어디에서 부터 오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늘 통독범위의 핵심구절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오염되어, 시기, 질투, 다

툼, 재해, 살인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시작'에 대한 진술은 고대 다른 신화와는 완전히 독보적으로 다릅니다. 그
리스도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인
제우스가 티탄과의 전쟁이 끝난 뒤 무료함을 느껴 생명체 창조를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프로
메테우스는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들고 그 후 동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동생 에피메
우스는 여기에서 매우 큰 실수를 하는데, 동물들에게는 강력한 재능들(이빨, 털, 날개 등등)
을 주었지만, 캄캄하고 인간에게는 재능을 주지 못하여, 인간은 가장 악하고 추위에도 취약
한 동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불쌍한 인간에게 신들의 '불'을 훔쳐다

오늘 해피밀 묵상 설교문입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시작'에 대한 진술은 고대 다른 신화와는 완전히 독보적으로 다릅니다. 그
리스도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인
제우스가 티탄과의 전쟁이 끝난 뒤 무료함을 느껴 생명체 창조를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프로
메테우스는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들고 그 후 동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동생 에피메
우스는 여기에서 매우 큰 실수를 하는데, 동물들에게는 강력한 재능들(이빨, 털, 날개 등등)
을 주었지만, 캄캄하고 인간에게는 재능을 주지 못하여, 인간은 가장 악하고 추위에도 취약
한 동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불쌍한 인간에게 신들의 '불'을 훔쳐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핵심 본문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
나님의 마음이 들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통みを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
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
기가 타락한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질문

오늘의 묵상질문입니다.

1. 세상에 귀여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깊이 묵상해보세요.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 많이, 오랫동안 고백해보
세요.



이사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사야 읽기



이사야 43-48장

두려움 중에 바라본 것(이사야 43:1-3)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있는 상황에서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중추적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과정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이내 일렁이는 파도를 보자 두려움이 찾아와 물에 빠졌던 것처럼 눈 앞에 보이는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 두렵습니다. 만약에 가벼운 비가 내릴 때 나에게 우산이 있고 이 정도의 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상황으로 인해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포로에 끌려온 비천한 족속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8절 말씀에서 풍겨지는 뉘앙스는 하나님께서 제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눈을 들고, 귀를 제대로 열라고 하시는 듯합니다. 자신의 모든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상황, 약함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본문에 충만하게 넘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창조자이고, 구속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과 불을 지나갈 때에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 앞에 놓인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눈 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 믿음의 시선으로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는 두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는 마침내 '새 일'을 행하실 메시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19절).

묵상질문

1. 요즘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사야 49-54장

불이해와 오해 가운데(이사야 53장 1-3절)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삶 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게 될 슬픔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때론 그 분을 원망하게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불신앙의 늪으로 치닫는 우리 생각의 흐름을 멈추어 줍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의 일관적인 태도는 '불이해 혹은 오해'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불이해의 모습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는 그 분의 고난 당하심을 보며 '오해'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했던 징계를 대신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불이해하고 오해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원망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은 우리의 오해와 불이해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7절에 보니 그 분은 아무 입도 열지 않으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십니다. 우리의 오해, 불이해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마침내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마쳤을 때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던 그 분의 모든 행동의 이유를 다 납득하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뵈어도, 또 이성적인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분을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말 속에 '납득없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에 '믿음'을 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라 '납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 '납득'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으로 불이해와 오해의 늪을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분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에 모든 일이 끝난 뒤 만족해하시는 그 분의 완전한 만족이 우리에게 미리 주어질 것입니다(10절).

묵상질문

1. 불이해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신가요?
2.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음 고백하게 되는 과거의 일이 있으신가요?





이사야 55-60장

듣는 마음(잠언 13:1)

가끔 두 아이가 다투는 것을 봅니다. 집에 하나 있는 장난감을 두고 다투는 때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항상 힘이 썩고 먼저 태어난 첫째 아이가 그 장난감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는 가지지 못함으로 인한 결핍을 느끼며 울립니다. 그럴 때면 저는 꼭 둘째 아이를 끌어 안아줍니다. 그깟 장난감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아빠표 롤러코스터를 태워줍니다. 아이는 저의 품 속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인생의 결핍은 우리를 힘겹게 하고 비루하게 하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인생의 결핍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하는 고양분의 밑거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을 통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모조리 결핍과 고난, 아픔을 가진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결핍 속에 울부짖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비루한 자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며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결핍 가운데 놓인 이들을 부르십니다. 목 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마르지 않고, 한계가 없는 신령한 것을 값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으로 부터 모든 좋은 것이 쏟아집니다. 그 분 안에 거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풍성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성한 것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나라의 복지 시스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저희는 나라에서 주는 기저귀 바우처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따뜻한 마음을 담아 무언가를 섬겨주실 때 너무 감동이 되고 고맙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그 분이라는 인격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그냥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쏟으시고 마음을 부으셔서 주셨음이 감격하게 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대신 값을 치뤄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이 대신 값을 치루셨기 때문에 값없이 그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묵상질문

1. 나에게 있는 결핍이라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2. 나의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진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 61-66장

깨진 조각도 다시보는(사 64:8-12)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 삶을 형성하시고, 만들어가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은 그 분이 빚고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에서 우리는 흙으로 표현됩니다. 흙은 그저 토기장이의 손길을 기다릴 뿐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빚어내든 흙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모습을 토기장에 손길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빚어가십니다. 그 분은 우리 삶에 대한 디자인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은 창조주 하나님답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빚으심은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맥락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진흙은 이미 실패했던 진흙이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45:9]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룰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자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질그릇이 토기장자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이미 만들어졌던 완성품인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깨어져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자에게 따집니다. 토기장은 그러한 질그릇을 깨부셨지만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질그릇을 가져다가 흙이 되게하고, 그 흙을 통해 새롭게 빚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했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에 실패하자,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으며, 나아가 이제는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다시금 재건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 분은 깨어진 조각도 다시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늘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믿음은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작은 풍랑에 가슴이 철렁입니다. 욕과 같은 고백은 꿈도 꾸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그 분을 불신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어진 우리를 다시 쓰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셔서 완전한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십니다.

이러한 회복을 위해 토기장이가 택한 방법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 분은 깨어진 조각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깨지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깨진 조각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모습을 어떻게 빚어오셨나요?
2. 깨진 조각 같은 마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레미야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레미야 읽기



예레미야 1-5장

불순종의 이유(렘 1:4-10)

오늘 성경에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불순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불순종이 일상이 된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6절 말씀과 같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존재이고, 또 하나는 그 존재가 행하는 기능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의 존재를 '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이'는 '나아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저 옛날 바로의 딸이 갈 대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를 보며 했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라는 단어는 도무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기능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말을 더듬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말에는 권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실로 아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청년 시기에 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당시 청년은 발언권이 없었고 그의 도전적인 말은 어른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말에는 힘과 권세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러한 약함을 보며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못한다고 말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에 늘 자신의 자격과 기능을 봅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껍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르심에 불순종합니다. 자신은 그것을 해보지 못했고, 그것을 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약함과 비루한 기능이 도리어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그 때에 능력의 온전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완벽한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자격없음을 보지 않음과 동시에 자신의 자격없음이 자격 있다는 생각의 전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붙잡으시고 그의 생각을 전환하십니다. 그 전환하시는 방법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는 것은, 분명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이유(렘 1:4-10)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하나님이시여" 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기 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것을 바라보면 소망 없지만,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 볼 때 우리 가정에 소망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본문

[렘1:4-10]

- 4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 6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 7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 8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시고
- 9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 10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나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기뻐하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또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말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기보다, “제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누가 제 말을 들어주겠습니까?”라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는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을 맡게 되면 “나는 잘해본 적도 없는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자격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시고 “그래, 네가 너무 어리니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가 자신의 입을 바라볼 때는 아무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자 그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예레미야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경험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나눔질문

1. 자신이 자신을 볼 때 연약한 것은 무엇인가요?
2. 요즘 내가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해서 피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에레미야 6-10장

어느 길로 가야 할까?(렘 6:16-19)

성경에서는 종종 길을 사람의 인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곧게 뻗은 길과 같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비뚤어진 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며 갈림길을 마주합니다.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도 갈림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곧 생, 사의 갈림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차라리 하나의 길만 있었다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할 텐데’라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과 선택도 할 수 없이 그저 정해진 길을 가야 하는 맹목적인 사람으로 살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 정, 의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발견하고,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의 길을 비춰 주셨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그들은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추격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마다 죄로 어두워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뒤로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왕을 세워 주시고, 매로 치기도 하시고, 독수리 등에 업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주님의 사랑과 섭리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길이 평강 합니까?’ 갈림길에서 더 평강한 길들을 고르고 싶어 합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늘 자신의 정욕에 따라, 자신의 기준으로 더욱 평강한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들의 질문 앞에 주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만큼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오늘 무슨 맘으로 주님께 평강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길이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죄인에게 가장 평강한 길은 바로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지, 정, 의가 정결하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가장 평안하고 좋은 길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기준으로 그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2. 내가 걸어왔던 길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예레미야 11-15장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렘 11:18-23)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있어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못살게 굴어도 그들만큼은 예레미야를 옹호해 주고 보호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의 문제가 이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나돗의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성읍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삶을 지속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얻기 위하여 아나돗의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대중의 인기나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류를 반대하고 가로막았습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불에 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들로 하여금 위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해하고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도록 음모를 짰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르는 순한 어린양과도 같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알게 하심으로 그가 위협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적들을 향하여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선지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죄인들의 모든 음모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려올 이 땅은 그가 손수 지으신 피조 세계였고, 그를 끌고 갈 이들은 그의 숨결이 들어간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를 저주받은 나무에 박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순수히 그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공의를 자신에게 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을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나무와 열매를 다 박멸하려 했지만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더욱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에 더욱 귀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2. 그때에 감정은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예레미야 16-20장

동상이몽(렘 17:5-11)

부부로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원수와 같은 편으로 전쟁에 나갔을 때 서로의 등을 맡긴다는 것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율법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형식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본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자들을 두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떨기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뿌리내리고 있는 곳은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는 이내 메마를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때에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만든 우상에 전심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그리고 나는 그 중심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때때로 나조차도 나의 중심을 오해하고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 보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모든 삶을 살피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거룩함을 보이려고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동시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에게 거룩이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자입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졌습니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감싸 주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비로소 거룩으로 휩싸이고 주님께 드릴만한 것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설교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십니까?
2.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좇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레미야 21-25장

한 영혼이라도(렘 23:1-8)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사자와 곰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러한 그의 마음은 왕이 되어서도 동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백성을 지키기 위한 마음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마음이 씁쓸합니다. 왕으로 합당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룸(여호아하스)은 요시아 왕의 개혁을 이어가지 못하고 악을 행하다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은 나라가 망해가는 와중에도 자신의 왕궁을 위하여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고니야(여호야긴)는 자신을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백성들을 홀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백성과 기술자, 제사장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백성들은 성 안에서 자신을 잡아먹는 극한의 기근과 전염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나의 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고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만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왕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된 왕이십니다. 저 위대한 다윗 왕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마지막 왕들처럼 백성들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생명과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짓밟고 올라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백성들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 전부를 내어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일평생 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의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잃어버린 양들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위하여 나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보호하여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습니까?
2.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6-30

억울함 가운데(렘 23:1-8)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품어주시기도하시고, 때로 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셨습니다. 이번에도 주님께서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순종해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돌이키겠다.’라고 여호와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던 성전에 대해서도 저주하셨습니다. ‘성전을 실로와 같이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서 성전이 완벽하지 않음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성전만을 믿고 나아갔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성전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에 그들의 신앙과 삶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예언을 쏟아내느냐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장면,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바로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 서 있는 예수님의 장면과 겹쳐 보입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며 위선 가득한 성전 신앙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15절의 예레미야는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로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 앞에서 손을 씻을 때 그들 또한 그것을 자신과 자신의 자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죄함을 근거로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무죄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질 형벌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으시고 순수히 감당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무죄하셨다면 오히려 반론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사를 주장했을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무죄함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건져짐은 이토록 완벽합니다. 허투루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거센 공격과 죽음 가운데에도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나의 자존심이나 당위성 따위는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나의 것들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2. 대처나 처세술을 지혜라고 여기십니까? 예수님을 지혜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가정(렘 6:16-19)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430장)"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매무지한 양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을 최고로 모시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혼자 살아가 때에도 갈림길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면 좋을까, 많은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둘이 되고, 셋이 되면 같은 갈림길이라 할지라도 더욱 어려운 여정이 되어집니다. 저마다 가고 싶은 곳들이 있고, 저마다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오히려 명쾌합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갈림길은 더 이상 갈림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도 다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가정 안에서 동상이몽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는 부모의 모습, 자녀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잘못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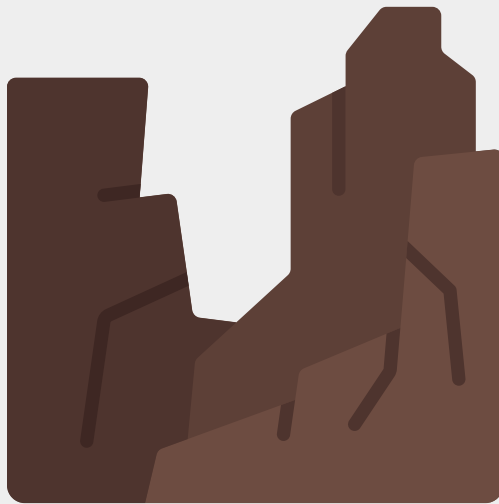
1. 우리의 가정은 갈림길 앞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2. 하나님께 결정을 내려주신다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에스겔



그리스도 중심으로 에스겔 읽기



에스겔 1-4장

듣든지 아니 듣든지(겔 3:10-11)

에스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한 손을 보았으며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애가와 애곡이 재앙의 말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두루마리는 안쪽에만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안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언자가 전해야 할 재앙의 말씀이 그 안에 많이 담겨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두루마리에 적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이 두루마리를 먹게 되었고 그 맛이 마치 꿀과 같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진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갔더라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나에게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기 때문에 결코 꿀과 같이 달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에스겔과 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이 꿀과 같다고 하였지만, 정작 그 말씀이 내 배 안에서는 쓰게 느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은 나에게 달콤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부담감과 이를 붙들고 애간장을 태우며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그로 하여금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포로로 잡혀있는 동족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이 사명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하였습니다. 쉬운 이유는 언어가 같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이 에스겔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말하기를 포기합니다. 듣지도 않는 사람에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듣지도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곤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에스겔을 더욱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2. 상대방을 보가면서 복음을 전하신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5-8장

좋게 말할 때 순종(겔 6:9-10)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칼 끝은 이스라엘 산 위에 있는 산당을 향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산마다 산당을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왕도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산당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먼 곳에 있다 보니 자주 갈 수가 없었기에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편리성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산당과 신앙은 점점 변질되어 갔으며, 다른 우상들이 그 산당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좀 불편한 일입니다. 수고가 있어야 하고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나를 위한 종교가 되고, 나의 욕망을 위한 종교가 됩니다. 그야말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편함이 따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크고 넓은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는 사이 나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또한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러한 산당들을 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심판의 날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 앞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 비로소 여호와가 정말로 하나님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지만, 그분을 여호와로 알아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무겁게 듣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순간이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보통은 실패를 경험할 때이고, 보통은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는 때이며, 우리가 힘겹게 쌓아 올렸던 욕망의 탑이 무너져 내릴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뒤늦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깨닫게 되며 진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어야 했음을 후회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경까지 가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진작 에스겔과 같은 선포자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을 누리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보통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는 편입니까?
2.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집을 붙들고 계십니까?





에스겔 9-12장

처음 된 자, 나중 된 자(겔 11:19-20)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간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남게 된 자들은 붙잡혀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붙잡혀가지 않게 된 이유는 더 의로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여겼으며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와는 자신들의 편이기 때문에 이 넓은 땅을 앞으로는 자신들에게만 허락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울며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며 직접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후 이스라엘 땅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남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들에게만 기업으로 주셨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남은 자들이 차지하게 되는 땅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그 땅의 주인이 될 땅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승리자인 것으로 보이지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처럼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 온갖 고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자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뜻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도를 걷는 일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묵상질문

1.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에스겔 13-16장

배은망덕(겔 16:14-16)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것들을 이용하여 다른 우상들과 행음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여러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금, 은, 장식품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기름과 향을 모두 우상 앞에 베풀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먹이라고 주신 고운 밀가루, 꿀, 그리고 기름을 모두 우상에게 드리는 향기로 삼았습니다. 그중 가장 가증스러운 죄악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신 귀한 생명인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바쳤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느끼신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막상 복을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그 영광을 영똥한 우상을 향해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성장시켜 주시고, 사회적인 지휘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러한 은혜는 망각한 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잘났다는 교만함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영똥한 곳에 소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우상에게 갖다 바쳤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도 갖다 바쳤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기보단 하나님 당신을 찾고 의지할 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그곳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30절). 즉, 그들의 믿음은 약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비겁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노력하십니까?
2.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17-20장

언약을 저버린 자들(겔 17:19-21)

오늘 본문에선 두 마라의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을 뜻하고,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뜻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첫 번째 독수리인 바벨론과 언약을 맺고 충성을 맹세했지만, 두 번째 독수리인 애굽을 의지하며 결국 바벨론을 향해 반역합니다. 이는 어마어마 정치적 실수였으며 이로 인해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단순한 정치적 판단의 실수가 아니라, 언약을 깨뜨린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애초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향한 반역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배신한 죄악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단순히 '믿습니다' 말로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할 때, 이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늘 우리를 향한 언약의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그분을 배신할 때가 있고, 믿음이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언약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독수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스라엘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손으로 뽑고, 심고, 자라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연한 가지이지만 훗날 이 가지는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며 각종 새가 그 아래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합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가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높이 세워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그 아래에서 쉼을 얻는 참 생명의 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실함 혹은 이웃의 신실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실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새 희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묵상질문

1.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결단하신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2. 주님 앞에서 결단한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새 영을 주셨어요(겔 11:19-20)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나는야 주의 어린이"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사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남유다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계속 살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예루살렘 땅은 오직 그들만의 것이 될 거라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결국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죽어 있던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며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믿음을 날마다 간직하길 소망해요.

나눔질문

1.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고 생각될 때가 있나요?
2.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에스겔 21-24장

보석입니까? 찌꺼기입니까?(겔 22:17-22)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러나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미어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보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향해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던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제 찌꺼기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찌꺼기'라는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생이 바로 찌꺼기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찌꺼기는 금속찌꺼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속을 한 곳으로 모아 풀무 불 속에 넣고 녹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한 데 모아 분노의 불을 붙여 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찌꺼기가 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표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가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상황과 고난을 통해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연단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같은 불이라고 해도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연단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찌꺼기에게는 심판의 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사람을 "찾고 찾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찌꺼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연단시키시고자 하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벗어나 찌꺼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원래 불 가운데 녹아버릴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만들어갈 연단될 보석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무너진 데를 막아 하나님의 성을 쌓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의 일원으로서의 보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사람을 찾고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곁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석으로 연단되어 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나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의 찌꺼기는 무엇입니까?
2. 가정과 교회, 직장 and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외면하고 있는 "무너진 곳"은 어디이며, 내가 그곳을 세우기 위해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니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니엘 읽기



다니엘 1-4장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단 3:16-18)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사람들이 금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한 번 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때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건지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이후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누구도 타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이 아니라 조서를 내려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에 세 친구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상황에 놓여있던 세 친구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니다. 담대하게 거절하긴 했지만 실제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한 대사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건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의 원대로 하지 않으신다고 하실지라도 금 신상을 향하여 절을 할 수 없다는 그들의 믿음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유사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이 자신을 지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기도 응답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선이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최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최고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며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묵상질문

1. 내가 오늘 절하고 있는 나의 삶의 금 신상은 무엇입니까?
2.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 5-8장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단 5:1-4)

우리는 어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왕과 우상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만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은 모든 것을 잊은 채 다시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교만을 행하게 됩니다.

그가 또다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 누구도 그 글을 해석하질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 뜻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 보셨고, 당신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으며,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기에 이방 나라에게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다니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벨사살 왕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에 술을 담아 먹는 등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분께 우리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잊은 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조롱하며 살아갑니다. 교만했던 벨사살 왕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나의 것처럼 여기며 사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보일만한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9-12장

별과 같이 빛나길 원하십니까?(단 12:1-4)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빛나고 싶어 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되었다기보다 인간에게 있는 욕구이자 바람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빛날 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느낍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자신의 모습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깐 빛나는 자신에게 취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잠깐의 행복을 위해 영원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빛나고 싶으십니까?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의 찰나의 반짝임을 위해 영원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히 빛날 날을 꿈꾸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나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을 통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환난이 있을 것인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가장 큰 환난일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기도 하며,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나머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죽어갔던 것처럼 마지막의 그날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그날을 기다리는 자이며, 자신만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지식이 풍성한 자가 되어 세상에서 잠깐 빛나는 것에 영원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식대로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더 나아가, 나만 그 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 책에 기록하여 주실 것이고,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내가 이 땅에서 빛나기 위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2. 말씀에 나타나는 영원토록 빛날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위에 옳은 데로 돌아오게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호세아 1-5장

'그러나'의 은혜(호 1:10-11)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과 결혼하여 그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그녀를 사랑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사랑의 역설을 깨닫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시고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에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바라보게 하십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의미이고, 둘째 로루하마는 다시는 너희를 공허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이고, 셋째 로아미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버림받아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10절에 "그러나"를 선포하십니다. 이전에 맺으셨던 언약을 기반으로 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라고 선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이며, 고멜과 같은 자들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예수 생명을 허락하시며 의롭다 칭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려 노력함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느껴야 하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돌이킴이 해야 하니까 하는 의무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으로 드리는 참된 사랑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러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므로,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사무치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내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2. 우리 모두는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단 3:17-18, 28-30)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장은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집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본문

(본문을 읽고 짧은 시간이라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28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30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말씀나눔

오늘 우리가 다니엘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에는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해.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그 앞에 엎드려 절하도록 명령했어.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선언했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신상 앞에 절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야.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지만 그때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한거야. 엄청난 믿음이지.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도하는데, 많은 순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기를 기도하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실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돼.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실제로 세 친구는 맹렬히 불타는, 평소보다 7배는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와 함께하셨고, 지켜주셨어.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었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를 사람들 앞에서 더욱 높여 주셨어.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가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나눔질문

1. 친구들이 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친구들이 거짓말할 때 같이 거짓말하지 않기, 친구를 괴롭힐 때 함께하지 않기 등
2.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